

4 뉴스

조인원 이사장, '경희의 서사 되새길 계기'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설립자 조영식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식 열려

지난 11월 26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탄신 100주년 및 경희학원 체제 출범 60주년 기념식이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됐다. 오프라인 기념식에는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과 한균태 총장, 김기택 경희의료원장 등 내부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경희 구성원은 실시간으로 중계된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기념식은 약력 보고, 미원기념사업회 비전 브리핑, 설립자 주요 저서 봉정, 조인원 이사장 연설 순서로 진행됐다.

약력 보고를 맡은 박영국 법인 사무총장은 “미원은 교육자, 사상가 그리고 실천운동가”라고 소개했다. 또, “보편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제창한 큰 사람, 길이 없어 스스로 길이 된 미래를 살았던 세계인”이라고 덧붙였다.

미원 조영식 박사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피란지에서 어려움을 겪던 성재학원을 인수하며 경희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경희학원을 문화세계 창조의 요람으로 만들고자 세계 대학 총장회의에서 학술, 교육기관의 공적 가치를 선구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는 경희학원



지난달 26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평화의 전당에서 기념식이 진행됐다. (사진=커뮤니케이션 센터)

“

**미원 사상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해 존재해야 하고
미래가 요청하는
인류사회의 소명**

”

의 역사에도 묻어난다. 박 사무총장은 “미원의 교육 혁신은 1970년대 초반에 실시한 민주시민 교육 특강, 1986년 세계 시민 교과서 편찬 그리고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미원기념사업회의 비전 브리핑도 진행됐다. 최관호 미원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미원철학과 사상의 새로운 조명을 통해 오늘의 인류사회와 미래사회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의식혁명을 통한 인간의 인간적 가치 ▲인류 보편의지를 구

현하는 전환적 사유 ▲지구 공동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의식의 세 가지 가치에 중점을 둔다고 밝히며 “세 가지 가치가 시대를 초월해 존재해야 하고, 미래가 요청하는 인류사회의 소명”이라고 전했다.

또, 기념사업회는 기념공간을 마련해 여러 시대를 잇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구현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전환문명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계 시민社会의 공적 담론의 장을 열 것”이라며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 생명 등에 대한 대화와 실천사업 실시 ▲강연 대담 보고서 작성 ▲다큐멘터리 제작 플랫폼

구축 ▲미원 평화상 제정 ▲인류 사회 평화에 대한 성취를 기리는 아카이브 ‘학술과 평화’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미원기념사업회는 미원 전집간행 위원회를 구성해 미원의 저서 중 <민주주의 자유론>, <문화 세계의 창조>, <인류사회의 재건>, <오토피아> 4권을 윤문본으로 출판했다. 미원 전집 편집위원회 신진숙 교수는 “4 권의 책은 경희를 만든 사유의 원천이자 인류사회에 나아갈 길을 밝히는 이정표”라며 “한반도와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주목해 온 미원사상이 순탄치 않은 미래를 맞이해야 할 미래세대에게 진취적 기상과 창의적 사색의 발판이 되길 원한다”고 재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조인원 이사장은 연설을 통해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대, 닫힌 이념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인간적인 세상을 열어가자는 사유세계가 경희의 출발점” 이었다며 ‘전환의 시대에 오늘의 행사가 미래를 향한 성찰의 계기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 이사장은 ‘경희 설립의 서사가 전쟁터의 절박함이라는 시대의 부름’에 ‘문화세계의 창조’로 태어났듯이 ‘인간과 문명의 죽어 흔들리는 현재 전환의 시대를 맞아 경희의 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자’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유아교육과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시민교육, 의료에서 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미래가 청하는 모든 길에 함께한 분들의 혼신적인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캠퍼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확정

강다은 기자 ekdms2002@khu.ac.kr

특별장학금 12억 원 지원 수혜대상은 2,700명

서울캠퍼스의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확정됐다. 특별장학금 지급은 교내주거비, 교외주거비, 생활장학금, 실험·실습·실기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지원장학금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대학본부는 이번 특별장학금에 지난 1학기 3억 원보다 많은 약 12

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코로나19가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장기화되었다”며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와 논의 끝에 지난 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서 수혜 대상과 총 재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생활비장학을 교내·외 주거비 장학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특별장학 지급 결정을 알렸다.

이번 특별장학금의 수혜대상은 총 2700명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교내주거비 30만원, 교외주거비 60만원, 생활장학금 50만원, 실험·실습·실기 수업 수강 학생 50만원으로 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별장학 기본 자격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이며,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일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교내주거비는 2021년 2학기 본교 기숙사 입주생 중 2021-2학기 기숙사 관련 교내 장학을 수혜 받지 않은 학생에 한정한다. 별도 서류 제

출 없이 Info21 온라인 신청만으로 접수된다. 교외주거비는 본교 기숙사 미입주생 중 2021-2학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가 10만 원 이상 80만 원 이하인 월세, 전세, 하숙 및 본교 기숙사 이외의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 지급한다.

생활장학금 수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및 근로 중단에 따른 가계곤란자와 부모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생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도 지

원 가능하다.

실험·실습·실기 수강 학생 지원장학금은 실험·실습·실기 수업 학업 이행을 위해 등록금 이외 비용을 추가 지출한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교내주거비와 교외주거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이외 특별장학금과는 중복 지원 및 수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금은 2022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